

正祖 親撰 「朱文手圈」의 편찬 및 구성에 관한 小考

尹炫晶*

I. 서론	IV. 절록 작품 비교
II. 정조의 朱子書 편찬	V. 결론
III. 「朱文手圈」의 구성	

• 국문초록

「朱文手圈」은 朱熹의 『朱子大全』을 대상으로 1798년 4월부터 약 50일간 정조가 절록한 약 1,140여개의 구절들을 모은 정조 친찬 초본 『四部手圈』 중 일부이다.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존숭은 주자의 방대한 글들을 세손 시절부터 여러 방식과 구성으로 편찬한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조 편찬 주자 관련 문헌 중 批圈 방식을 적용하여 단독 문헌이 아닌 경우는 「주문수권」이 유일하다. 본고는 「주문수권」의 구성 방식 상의 특징을 『주서백선』과 비교하고, 그 절록된 내용을 『주서백선』을 포함한 조선 편찬 주자 관련 문헌 13종에 누적 수록된 작품과 교차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주문수권」에 담긴 정조의 『사부수권』 편찬 목적을 추측하였고, 그 결과 「주문수권」은 비권 행위 자체로 주자의 뜻을 본받고자 한 정조의 뜻에 의해 편찬되었고, 그 편찬 과정에 초계문신들을 다수 참여시켜 文治를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되어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근거로는, 첫째, 「주문수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절록된 구절만을 강조하고 출처 이외의 정보는 생략하였으며, 『주자대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주서백선』의 세밀한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둘째, 「주문수권」과 『주서백선』 두 문헌에 선별 및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절록된 작품을 비교해보면 출입이 존재하며, 대부분 주자의 학술 사상 및 논의 혹은 주자의 사적인 조언 및 의견이 담긴 내용이 「주문수권」에는 절록되어 있지 않다. 셋째, 조선조 간행된 주자 관련 선본 13종의 누적 수록 횟수가 높은 작품들을 「주문수권」절록 작품과 비교해보면, 정조 본인이 군주로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절록하지 않았으며, 자주 쓰이는 구절이나 속담과 비유가 묘사된 인용구들은 다수 절록하고 있다.

이처럼 「주문수권」은 『주서백선』과 편찬 의도가 상이하며, 정조의 주자학이나 조선의 주자학 수용 양상을 검토할 때에 누락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이다. 본 연구는 정조의 선본과 초본의 가치를 규명하고 문헌 구성 분석을 통해 그 편찬 의도를 추측한 것에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朱文手圈」, 『五子手圈』, 正祖, 『四部手圈』, 抄本, 朱子

I. 서론

조선의 22대 임금 正祖는 대표적인 학자군주로서 經筵을 주도하며 학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문헌을 적극 수집하여 이를 연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다수의 문헌을 직접 편찬하기도 하였다. 특히, 宋代 학자 朱熹를 매우 존경하여 朱子學을 깊이 연구하였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주자의 저술과 그에 대한 주석서까지 모두 정리하여 ‘朱子全書’를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기록¹⁾이나 더 나아가 규장각 주합루 근처에 주자의 영정과 편찬된 주자전서를 보관하는 별도의 건물을 세워 수시로 참배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기록²⁾ 등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朱文手圈」 역시 정조가 편찬한 주자 관련 문헌의 일종으로서, 『四部手圈』 중 子部에 해당하는 『五子手圈』의 일부이다. 『오자수권』은 周子·伯程子·叔程子·張子 그리고 朱子の 글을 대상으로 하여 권점과 비점을 치고 이를 모아 엮어 만든 문헌으로, 그중 주자의 글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곧 「주문수권」이다.

「주문수권」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는 정조의 주자학을 중심으로 다룬 단행본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에 실린 『주자대전』의 요약본, 『주문수권』 논고³⁾가 있으며, 같은 연구자의 단행본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수록된 「정조의 주자서 편찬과 그 의의」 논고⁴⁾, 그리고 정조의 주자서 편찬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논고가 존재한다.⁵⁾ 『사부수권』의 일부로서 「주문수권」을 언급하고 있는 종류의 연구로는 규장각에서 2002년 소장 필사본을 영인한 『사부수권』의 서두에 수록된 해제⁶⁾와 『사부수권』의

1) 『弘齋全書』卷29, 繪音 4, 「命使行購朱夫子書真本繪音」, “嘗於燕閒有暇, 就一部大全, 爲日用厚生之菽粟茶飯. 略之爲會英, 類之爲選統, 鈔之爲百選, 槩之爲節約, 集之爲會選. 而竊又有契於春秋之旨, 擬成大一統文字, 欲以大全, 語類, 遺書與二經, 四書之傳義, 章句集註, 或問及啓蒙, 家禮, 著卦之考誤, 昌黎之考異, 以至魏氏之契, 楚人之辭. 通書, 西銘, 太極傳解等羣書, 裒以粹之, 作爲全書, 如明道之誌康節, 紫陽之狀濂溪.”

2) 『日省錄』, 正祖 22年(1798) 4月 19日, “近又留意於朱子大全及語類與其外片言隻字之出於夫子之手者, 欲爲集大成, 編爲一部信書, 卷數之爲百幾十卷, 或二百卷, 姑未知之, 而待其編成, 將欲藏其板本於宙合樓近處, 而奉安朱子眞像於其中, 以爲瞻拜之所, 予於朱夫子, 實有師事之誠, 所以欲如是也.”

3)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2000.

4) 김문식,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5) 김문식, 「정조의 주자서 편찬과 간행」, 『문헌과 해석』 88, 태학사, 2021.

편찬과 의의에 대해 총괄하여 살핀 조동영의 논고,7) 『사부수권』의 편찬 과정 중 정조가 문인들과 논의하며 교정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강순애의 논고8)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주자 문집의 수용을 검토하는 맥락의 연구9)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조가 주자의 서간문 중 100편을 뽑아 엮은 선본 『朱書百選』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초본 「주문수권」에 대해서는 강문식의 논고10)와 같이 추가적으로 언급한 정도에 그친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부수권』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조사를 개괄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문수권」을 간단하게 언급하였거나, 혹은 조선시대 편찬된 주자 관련 문헌을 검토하면서 「주문수권」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거나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편찬해 온 여러 주자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대상으로 하여 「주문수권」을 편찬한 의도와 그 구성상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주문수권」은 초본 『사부수권』의 일부로서 정조가 거질의 『주자대전』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여긴 구절과 암송할만하다고 생각한 구절만을 수록하여 극히 축약된 형태로 편찬되었으며, 이러한 문헌 구성상의 특징은 정조 편찬의 여러 주자서 중 유일하므로 정조의 주자학 연구 흐름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초본 「주문수권」의 구성 방식의 특징을 선본 『주서백선』과 비교하고 그 절록된 내용을 『주서백선』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편찬된 여러 주자 관련 문헌에 수록된 작품과 교차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주문수권」에 담긴 정조의 『사부수권』 편찬 목적과 주자학 연구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이 문헌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6) 『四部手圈』,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7) 조동영,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한국한문학회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8)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8, 한국서지학회, 2019.

9) 최경훈, 「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朝鮮時代 『朱子大全』의 刊行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76, 한국서지학회, 2018; _____,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10) 강문식,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II. 정조의 朱子書 편찬

1. 정조의 주자서 편찬 흐름

정조의 주자서 편찬에 대한 일련의 시도는 정조가 『오자수권』을 편찬한 후 지어 卷首에 추가한 「親撰示校正諸學士」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朱子의 글을 외고 익혀서 머리가 허영게 센 지금에서야 약간 自得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그 책 수가 너무 많아서 仙界의 음악을 洞庭湖에서 연주하는 것 같아 그 춤추는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자의 글을 모으는 것으로 일을 삼아 그중 핵심을 이루는 부분만 뽑아서 《紫陽會英》을 만들었고, 門目을 나누어 편집하여 《紫陽選統》을 만들었고, 왕복한 편지를 가려 뽑아서 《朱子書百選》을 만들었고, 《朱子大全》과 《朱子語類》의 개략을 합하여 《朱子書節約》을 만들었고, 부지런히 주자의 遺書를 수집하여 따로 《朱子會選》을 편찬하였으며, 널리 여러 학설을 모아 補註를 편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제 장차 《주자대전》·《주자어류》·《朱子遺書》·《詩集傳》·《易本義》·《四書章句集註》·《四書或問》·《易學啓蒙》·《家禮》·《著卦考誤》·《韓文考異》·《參同契考異》·《楚辭註》·《通書解》·《太極圖解》·《西銘解義》 등 여러 서책을 모두 수집하여 大一統의 문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는 학문의 범위를 넓히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핵심을 요약하는 단계로 가고, 요약의 단계에서 다시 大成의 단계로 가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朱子大全》에 직접 권점을 찍었다.¹¹⁾

이상의 인용문에서 정조는 어려서부터 주자의 글을 읽어 조금 깨달은 바가 있으나 책 수가 지나치게 많은 탓에 요약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자신의 주자학 연구를 분류별

11) 『弘齋全書』 卷181, 「羣書標記 3」 ○ 御定 3 五子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予自少誦習朱子, 于今白紛如, 粗有自得之者, 但其篇帙極浩瀚, 有如廣樂張於洞庭, 未易究其俯仰綴兆之容也. 彙輯編摩, 遂以爲業, 提領繁要而爲紫陽會英, 分門列目而爲紫陽選統, 鈔往復書疏而裁擇之, 爲朱子書百選, 合大全語類而梗槩之, 爲朱子書節約, 勤求遺書而另編會選, 廣集諸說而命撰補註. 行將竝收大全, 語類, 遺書及詩集傳, 易本義, 四書章句集註或問, 易學啓蒙, 家禮, 著卦考誤, 韓文, 參同契考異, 楚辭註, 通書解, 太極圖解, 西銘解義等諸書, 爲大一統文字. 以爲博以至於約, 約以至於大成之義, 而先就大全而爲手圈.”

로 편집하거나 서간문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누락된 글을 모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구성의 문헌으로 엮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삼아 앞으로는 열거한 주자의 모든 저서를 대상으로 하여 ‘大一統’의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주자대전』에 권점을 찍어 편찬한 「주문수권」이 그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정조는 전문 중에 핵심이 되는 일부만을 선별 및 요약하는 형태의 문헌인 선본을 다수 편찬하였는데¹²⁾, 그중 주자의 글을 대상으로 한 선본¹³⁾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비슷하게 정조가 여러 주자 관련 문헌을 편찬하였던 일을 말하면서 「주문수권」에 대해 언급한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평생 공부한 것은 주서 한 부류이다. 내 나이 20세 이후에 《朱書會選》을 편집하고, 또 春坊·桂坊의 신하들과 함께 註解를 뽑아 확정하고, 또 《語類》에 懸吐하였다. 30세에는 《朱子會統》을 편집하고, 또 고 學士 韓億增이 편집한 주서를 고증하고 訂定하였으며, 또 《紫陽會英》을 편집하고 朱書各體를 편집하였다. 40세 이후에는 주서를 두루 열람한 것이 많았다. 근년에는 또 《朱書百選》을 편집하였고, 작년 여름과 가을에는 朱子全書 및 《朱子大全》과 《주자어류》에서 구절들을 간략하게 줄여서 다시 한 권의 책을 만들고 《朱子書節約》이라고 이름 붙였다. 근래에는 다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그 밖에 주자의 손에서 나온 片言隻字까지 集大成하여 信書 1부를 편찬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 권수가 백 몇 십 권이 될지 200권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편찬이 끝나는 대로 그 판본을 宙舍樓 근처에 보관하고 주자의 眞像을 그 안에 奉安하여 우러러 배례하는 장소로 삼고자 한다. 나는 朱夫子에 대해 실로 師事하는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것이다. …… 팔대가의 글과 육선공의 문집 중에서 직접 추려 내어 오늘 한 번 본 곳에 하나의 批點을 찍고, 내일 두 번째로 볼 때에는 다시 貫珠를 치고, 그 뒤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그 뒤에 신하들과 토론하며 當否를 取捨하였다. 그런 뒤에 또 한 번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다시 1부의 책자를 만들어서 《八家手圈》이라 이름하고 《陸董手圈》이라 이름하였으니 대체로 직

12) 「군서표기」에 수록된 御定書 중 선본은 18종이며, 그 중 주자서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7종에 해당한다.

13) 정조의 주자학 연구 및 선본 편찬 추이에 대한 분석은 강문식,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이 상세하다.

집 모아서 편찬했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 근래에는 朱子書를 편집하고자 하여 먼저 그중 뛰어난 편을 고르고 암송할 만한 구절을 뽑아서 함께 ‘수권’이라고 이름 붙여서 편찬하고자 한다.¹⁴⁾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주자서 편찬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자신의 행적과 근래에 구상하고 있는 주자전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자전서를 편찬한 이후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뒤이어 최근 당송팔대가의 글과 육선공의 문집에 비권 작업을 하여 완성한 『팔가수권』과 『육고수권』의 편찬 방식과 구성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문수권」을 편찬할 계획을 밝힌다. 주자의 글을 모두 집대성하겠다는 구상이 곧 앞의 인용문에서 말한 ‘대일통’을 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문의 범위를 넓히는 단계에서 요약하는 단계로, 그 요약한 결과물들이 다시 큰 하나의 계통을 이룰 수 있게끔 구성한다는 주자서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서, 팔대가와 육선공의 글에 적용해본 비권이 적절한 요약의 방식임을 확인한 시기에, 같은 방식을 주자서에도 적용하여 핵심을 요약하는 단계의 문헌, 즉 「주문수권」의 편찬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군서표기』에 수록된 정조 편찬 주자서를 일괄하여 정리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정조 편찬 주자서 문헌 목록

書名	卷數	版種	編纂 年度	元典 文獻	備考
朱子會選	48권	筆寫本	1774	朱子書節要, 朱文酌海	命撰
兩賢傳心錄	8권	筆寫本	1774	주자의 산문과 詩 및 雜著	

14) 『日省錄』- 正祖 22年(1798) 4月 19日, “子之平生工夫在於一部朱書. 子年二十後輯朱書會選, 又與春桂坊抄定註解, 又懸吐於語類. 三十時編朱子會統, 又証定故學士 韓億增所編朱書, 又編紫陽會英, 又編朱書各體. 四十後, 徧閱朱書者多. 而近年又編朱書百選, 而昨夏及秋, 取朱子全書及大全語類, 節略句語, 又成一書, 名曰 朱子書節約. 近又留意於朱子大全及語類, 與其外片言隻字之出於夫子之手者, 欲爲集大成, 編爲一部言書, 卷數之爲百幾十卷, 或二百卷, 姑未知之, 而待其編成, 將欲藏其板本於宙舍樓近處, 而奉安朱子眞像於其中, 以爲瞻拜之所. 子於朱夫子, 實有師事之, 誠所以欲如是也. …… 又於八大家及陸集中, 手自抄出, 今日一看處, 下一批點, 明日再看時, 更加貫珠, 其後又審閱, 又其後與諸臣討論取捨當否. 又其後一番細看, 又其後作爲一部冊子, 篇名曰 八家手圈, 又名曰 陸稿手圈, 蓋取手自裒輯之義也. …… 近日欲編朱子書, 先欲抄其精華, 取其句節之可誦者, 一體名之曰 手圈.”

紫陽子會英	3권	筆寫本	1775	朱子書節要	
朱子選統	3권	筆寫本	1781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書百選	6권	活字本(丁酉字)	1794	朱子書節要	翻刻
朱文手圈	6권	筆寫本 (순조조 목판 간행)	1798	朱子大全	
雅誦	8권	活字本(壬辰字)	1799	주자의 詩	翻刻
朱子書節約	20권	筆寫本	1774~1800	朱子大全, 朱子語類	

이상의 표를 살펴보면 우선 정조가 본인이 언급한 대로 세손 시절부터 즉위 후 재위기간 중에도 꾸준히 주자서를 편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문헌들은 李滉의 『주자서절요』와 鄭經世의 『주문작해』를 『주자대전』의 편찬에 알맞게 정리하고 누락된 글을 추가로 부록하는 방식, 송시열과 주희의 글을 연결 지어 두 사람의 영향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엮은 방식, 『주자서절요』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이를 韓億增의 초본 체례에 따라 편찬한 후 각체의 시문을 부록하는 방식,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중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직접 분류한 항목에 따라 편찬하는 방식, 주자의 시를 가려 뽑고 정밀하게 교정한 후 주석을 추가한 방식 등 주자의 서간문과 여타 산문, 그리고 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체를 대상으로 縱橫으로 분류하고 편찬하며 다양한 방식의 편찬 구성을 시도하였다. 주자서 편찬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작업하면서 매번 새로운 구성을 시도한 점은 조선의 주자학 수용 사례 중 정조에 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성으로, 번다한 양의 주자의 글들을 가능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했던 정조의 주자 연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상 8종의 문헌 중 간행까지 이루어진 것은 『주서백선』과 『아송』, 그리고 정조 사후 순조조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사부수권』에 포함된 『주문수권』이고, 이외의 문헌들은 모두 필사본으로만 완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조는 필사본에 그친 문헌들에 대해 ‘선현의 글을 자신의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은 건방지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것이므로, 다만 내 공부의 중요한 표시로 삼으면 족한 것이다.’¹⁵⁾라고 하며, 이 문헌들은 단순히 스스로 살펴보기 위해 편찬한 본인의 주자학 연구 결과물이므로

15) 『弘齋全書』 卷179, 「羣書標記 1」 ○ 御定 1 朱子選通, “先賢文字之以己意取捨, 實有汰哉之嫌, 則祇備子著工之要符足矣.”

간행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면, 정유자로 찍어낸 후 번각하도록 명하였던 『주서백선』의 경우, 교육용 선본을 목적으로 하여 편찬된 문헌이므로 편찬이 완성되는 즉시 간행하여 널리 반사하였고, 『아송』 역시 문인들에게 주자의 시를 학습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찬된 문헌이므로 임진자로 찍어낸 후 번각하여 經筵과 胄筵에 進講하도록 하고 尊經閣에 소장하여 月講할 때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주문수권」이 포함된 『사부수권』의 경우, 1798년 편찬이 완성된 전후로 간행 관련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통해 정조가 이 문헌을 편찬한 목적이 적어도 일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주문수권」의 편찬 목적; ‘約’ 공부의 실천과 권유

「주문수권」이 교육용 목적으로 편찬된 문헌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문헌의 종류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부수권』은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절록하는 방식을 거쳐 經·史·子·集의 四部 분류로 구분하여 엮은 초본이기 때문이다. 정조는 평소 초록 혹은 절록하는 행위를 효율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하며 높이 평가하고 실천하였는데, 이는 공자의 ‘博文約禮’를 본받아 광범위한 문헌을 널리 섭렵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체만을 체득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참된 학문이라고 여긴 것¹⁶⁾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초본은 곧 이러한 정조가 수행한 공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부수권』은 經部 중 『儀禮』, 『周禮』, 『禮記』의 三禮를 대상으로 한 『三禮手圈』, 史部의 경우 『史記』와 『漢書』를 대상으로 한 『兩京手圈』, 주희를 포함한 五子の 글을 절록한 『五子手圈』, 육선공의 글 전문을 대상으로 절록한 『육고수권』, 마지막으로 당송팔대가의 글에서 뽑은 『팔가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당히 많은 양의 원전을 대상으로 하여 극히 축약한 종류의 초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여러 글 중에 뛰어난 글을 선별하여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록하는 형태의 선본에 비해 한 작품 내에서도 특정 구절만을 절록하는 형태의 초본은, 문장을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에게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¹⁷⁾ 더구나, 『사부수권』에서 원전으로 삼고 있는

16)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4 文學, “予平日看書則必鈔輯, 蓋所以提事實之緊要, 撮文詞之精英, 此亦博文約禮之工也. 自春邸時藏之巾箱者, 不知爲幾卷帙, 其中朱子大全話類, 陸宣公奏議二書, 近脫蕪編印矣. 近世搢紳子弟, 未嘗聞俯首讀一帙書, 誰欲下此勤劬之工夫乎.”

문헌들은 『史記英選』, 『주서백선』, 『陸奏約選』, 『八子百選』 등 교육용 선본으로서 이미 편찬 및 간행 그리고 유포까지 널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본의 형태로 재차 편찬된 『사부수권』은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초본의 형태로 편찬된 『사부수권』의 일부인 「주문수권」을 정조의 주자서 편찬이라는 흐름과 교차하여 검토해보자면, 정조가 『주자대전』을 대상으로 批圈 작업, 즉 초록을 시도해본 것이 주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전에 『주자선통』 편찬을 통해 『주자대전』의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항목을 나누어 분류하는 작업을 마친 정조는, 이를 토대로 14일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비점과 권점 작업을 수행하며 「주문수권」을 편찬할 수 있었다.¹⁸⁾ 더구나, 이러한 작업은 『양경수권』 및 『삼례수권』의 편찬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주자의 핵심 학문과 사상을 분석한 정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비권’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둔 연구 과정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조가 “지금 내가 비점을 찍고 권점한 작업은 대체로 주자가 물려준 뜻이다.”¹⁹⁾라고 하며 권점을 치는 행위 자체를 스스로가 朱子의 道統을 잇는 학자임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였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정조가 『사부수권』의 서명에 대해 ‘직접 모아서 편집했다는 의미이자 英陵(世宗)이 구양수와 소식의 手柬(親筆信)을 천백번 便覽했다는 일화를 繼述한 것’²⁰⁾이라고 설명했던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주자대전』에 비점과 권점을 쳐서 초록하고 이를 직접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은 ‘約’의 공부를 실천하는 일인 동시에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주자의 뜻을 본받는 일이며, 「주문수권」은 그 결과물로서 편찬된 문헌인 것이다.

17) 윤현정, 「正祖 親撰『八家手圈』의 編纂에 관한 小考」,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18) 「무오과정일표」에 따르면 「주문수권」의 비점과 권점 작업은 정조 22년(1798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7일부터 9일까지,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월 1일부터 6일과 8월 12일, 17일부터 27일까지, 9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선사 작업과 교열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0일에 완성하여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 최종 열람하여, 총 47일이 소요되었다. 그 중 비권 작업에 소요된 시일은 14일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문수권」의 완성까지 총 21일이 소요된 것으로 헤아린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 『弘齋全書』 卷56, 雜著 3 求諸圈跋語於四閣相及文衡, “今予批圈之作, 蓋朱子之遺意也.”

20) 『日省錄』, 正祖 22年(1798) 4月 19日, “蓋取手自稟輯之義也, 嘗見野史, 英陵朝有歐蘇手柬便覽之語, 今以手圈名者, 亦仰述之意也.”

한편, 정조가 『사부수권』을 편찬할 때 여러 초계문신들을 참여시켜 편찬을 돕도록 하였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문수권」의 경우, 李晩秀에게 보낸 어찰 중 “「紫陽文手圈」 편찬의 일은 재계하고 손을 씻고서 이제 시작하려 하니 비점을 먼저 찍고 권점을 나중에 하고서 이전의 예에 따라 편차하고자 한다. 비점을 찍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힘을 나누고자 하여, 이에 몇 권을 보내니, 먼저 황점을 찍어 들여보내면 첨삭하고 권점 작업을 시작할 생각”²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어, 이만수가 황점을 찍고, 이를 정조가 첨삭한 후 권점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뒤이어 1798년 7월 4일과 6일에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 중에는 “글자 하나하나 일일이 교정을 보지 못한 곳을 각별히 살펴서 똑같은 예로 교정하라”든가 “이번에 보낸 책에서 권점이 빠진 곳과 주석 부분에서 아직 교정하지 못한 곳과 대전의 윗부분에 산삭하라는 첨지가 붙지 않은 곳 모두를 일일이 살펴서 보내라”는 등의 내용이 있어²²⁾ 권점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홍취영이 교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월 4일부터 9일까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여러 초계문신들이 교열과 교준 및 교정 작업에 참여²³⁾하였고, 마지막에는 김희가 명을 받아 발문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정조는 『사부수권』 편찬에 여러 문인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면모는 비점과 권점을 쳐서 초록하는 방법을 문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비권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신하들에게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그 편찬 행위 자체로 순정한 문체를 문인들이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답론은 정조의 文治 구현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규명된 바 있다.²⁴⁾ 이와 관련하여 「日得錄」에는 무오년에 『사부수권』을 완성한 뒤, 정조가 편찬 과정에 여러 문인들을 참여하도록 했던 의미에 대해 언급한

21) 正廟御札, “紫陽文手圈之役, 齋心盥手, 今欲始爲而先批後圈, 用已例以篇秩之. 浩汗批役, 欲與之分力, 此送數卷, 先卽點黃, 入送爲可. 來當添削, 仍始圈役計, 姑此.”

22)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8, 한국서지학회, 2019.

23) 『內閣日曆』, 1798年 10月 16日 丙午, “朱文手圈較準抄, 啓文臣洪秀晚金熙洛, 別省記入宿.”; 『內閣日曆』, 1798年 10月 17日 丁未, “朱文手圈較準抄, 啓文臣金履載李羲甲, 別省記入宿.”; 『內閣日曆』, 1798年 10月 18日 戊申, “朱文手圈較準抄, 抄啓文臣洪秀晚宋知濂金熙洛, 別省記入宿.”; 『內閣日曆』, 1798年 10月 19日 己酉, “朱文手圈校正, 抄啓文臣洪秀晚李羲甲宋知濂金履載李勉昇金熙洛, 別省記入宿.”

24) 백승호, 『정조의 문치』, 휴머니스트, 2020 참조.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하의 인용문과 같다.

나는 정무를 보는 여가 시간에 三餘의 공부를 쉬지 않아, 經史를 따지지 않고 매년 겨울마다 반드시 한 질의 책을 通讀하곤 하였다. 올겨울에는 우연히 《四部手圈》을 편찬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校閱하는 抄啓文臣들로 하여금 날마다 課讀하게 하고, 별도로 책자를 마련하여 읽은 것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不欺錄》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주자가 魏應仲에게 준 편지의 뜻을 붙인 것이다. ‘속이지 않는다[不欺]’는 것은 우러러 하늘을 속이지 않고 고개 숙여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큰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또한 인재를 기르고 성취시키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²⁵⁾

이상의 언급을 살펴보면, 정조는 『사부수권』을 편찬할 때에 교열한 초계문신들이 날마다 본문을 과독하게 하고, 또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하게끔 하였다고 말하며, 그 기록의 이름 또한 주자의 뜻과 연결 지어 말하고 있다. 뒤이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그들을 성취시키기 위한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 밝혀, 『사부수권』의 편찬이 단순히 자신의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계문신들로 하여금 초록하는 공부법을 익히게 하고, 원전으로 삼은 문헌들을 숙독하게끔 하려는 목적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문수권」은 정조가 주자의 모든 저서를 대상으로 ‘大一統’ 작업을 시작한 첫 단계에 해당하는 문헌이자, 자신의 초록 공부를 『주자대전』에 적용해본 시도이며, 다른 한편으로 초계문신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타 주자서나 정조 편찬 선본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Ⅲ. 「朱文手圈」의 구성

「주문수권」은 『주자대전』과 『주자대전속집』, 『주자대전별집』, 『주자대전유집』의

25)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5 文學 5, “予於機務之暇, 不輟三餘之工, 毋論經史, 每冬必了得一帙書, 歲以爲常. 今冬, 偶因手圈之役, 令校閱之抄啓文臣, 排日課讀, 另置冊子, 記其所讀, 名之曰不欺錄. 蓋寓朱子與魏應仲書之意, 不欺者, 仰不欺天, 俯不欺心也, 此事雖小, 可以喻大, 亦出於作成之苦心.”

차례로 封事, 奏劄, 講義, 議狀, 奏狀, 申請, 書, 雜著, 序, 記, 跋, 銘, 箴, 贊, 表, 疏, 啓, 祝文, 祭文, 碑, 墓表, 墓誌銘, 行狀, 事實, 公移 등의 글을 절록하여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²⁶⁾, 총 1,140句의 구절이 수록되어 있다.²⁷⁾ 「주문수권」에 수록된 구절의 문체 및 권차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주문수권」 수록 구절의 작품명

卷次	文體(句節數)	作品名(收錄 句節 數)
卷一	封事(29)	壬午封事(6), 庚子封事(4), 戊申封事(13), 己酉擬上封事(5), 甲寅擬上封事
	奏劄(12)	辛丑奏劄(2), 戊申奏劄一, 奏劄二, 奏劄五, 甲寅奏劄一, 奏劄二(2), 乞進德劄, 乞逐日進講劄, 經筵留身劄, 乞修三禮劄
	講義/議狀/劄子(8)	經筵講義, 祧廟議狀(3), 山陵議狀(4)
	奏狀(8)	南康稟事狀三, 奏掾荒狀, 奏蝗傷稼狀, 奏掾荒事件狀, 奏掾荒事宜狀, 奏鹽課利害狀, 條奏經界狀, 申修白鹿院狀
	申請(5)	經界申狀(4), 再申狀
	書(87)	與鍾戶部書○以下時事出處(2), 答陳宰書, 與魏元履書(2), 與陳侍郎書(6), 賀陳丞相書, 答魏元履書, 與陳丞相書(2), 與汪尚書書(2), 答汪尚書書, 第二書, 第三書(2), 答劉平甫第二書, 答張敬夫書(3), 第四書(2), 與呂伯恭書, 答韓尚書書, 與龔參政書, 與陳丞相第四書, 答呂伯恭書, 答鄭自明書, 與袁寺丞書(2), 與臺端書(3), 上宰相書(7), 與陳丞相第二別紙(2), 與趙帥第四書(2), 與陳福公書, 與陳丞相第五書, 答詹帥第二書(2), 第三書, 與周丞相書, 第三書, 答陳同父書, 第二書, 答李誠父書, 與黃仁卿書, 與留丞相書(2), 第二書(6), 第三書(2), 第四書(3), 與趙帥第八書, 答趙尚書書, 與趙尚書第二書(4), 與王謙仲劄子, 與趙丞相書(2), 與鄭參政第二劄子, 與李季章書, 與留丞相第七書, 與楊子直書, 答張定叟書
卷二	書(185)	答汪尚書第二書○以下問答(2), 第三書(3), 第四書(6), 第五書(3), 與汪尚

26) 본고에서 연구 저본으로 삼은 『사부수권』 현존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奎51으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제는 「四部手圈」이며 총 13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4.4×17.1cm이고, 有界, 10行20字이며 어미는 上花紋魚尾이며, 책 크기는 36.9×23.4cm이다. 필사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글씨가 매우 해정하고 원문의 우측에 청색 먹으로 음을 표시하거나 구결토를 달아놓은 점을 통해 精稿本으로 추정된다(『四部手圈』,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27) 선행연구에서는 「무오과정일표」의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총 수록 구절을 2,223구로 헤아리고 있으나, 실제 수록 구절의 수는 「무오과정일표」와 차이를 보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書書, 答汪尙書第六書(2), 答汪尙書論家廟書, 答汪尙書第八書, 答張欽夫書(3), 與張欽夫第三書, 第四書別紙(2), 與張欽夫論程集改字書(2), 答張欽夫第二書(3), 與張敬夫書, 答張敬夫書(2), 第二書, 與張敬夫第二書, 答張敬夫第七書, 第八書, 第九書, 第十一書, 第十二書, 第十四書(2), 第十五書, 答張敬夫問目(6), 答張欽夫又論仁說, 答張欽夫第四書, 答呂伯恭第四書, 第五書, 第六書, 第九書, 第三十一書, 第四十書, 第四十七書(3), 第五十六書, 第六十六書, 第六十八書(2), 第六十九書, 第七十一書, 第七十六書, 與東萊論白鹿院記書(3), 答呂伯恭第八十一書, 第八十二書(5), 第八十三書(2), 第八十八書, 第九十三書(2), 答呂伯恭問龜山中庸別紙, 答呂伯恭第九十五書別紙, 答呂伯恭別紙(3), 答呂伯恭論淵源錄(6), 答劉子澄第二書(2), 第四書, 第六書, 與劉子澄第二書, 第三書, 第四書(3), 第五書, 第六書, 第七書, 答陸子壽書, 第二書, 答陸子美第二書, 答陸子靜第四書(6), 第五書(9), 答陳同甫第二書(2), 與陳同甫第二書, 答陳同甫第三書, 第四書(8), 第五書, 第六書(12), 第七書(6), 第八書, 第九書(3), 第十書, 第十一書(3), 與籀溪胡先生書, 與范直閣第二書, 與慶國卓夫人書, 上黃端明書, 與王龜齡書(2), 與陳丞相書(3), 與劉共父書(2), 第四書(2), 答鄭景望書(3), 第二書, 答尤延之書(2), 與郭冲晦第二書(3), 答陳體仁書(2)</p>
<p>卷三</p>	<p>書(252)</p>	<p>答袁機仲書, 第二書, 第三書(6), 第四書, 答袁機仲別帥(4), 答袁機仲第六書(2), 第八書, 第十書, 答趙提舉書(4), 與周益公書, 答周益公第二書(3), 答薛士龍書, 答林謙之書, 答江元適第三書, 答李季章第二書, 第三書, 第四書, 答陳君舉書(2), 答林正夫書, 答柯國材第二書, 第四書, 答許順之第三書, 第十二書, 第十五書, 第十九書, 答陳齊仲書, 答李近思書, 答魏元履書, 第二書(3), 第三書, 與魏應仲書(3), 答范伯崇第二書(2), 第四書, 第八書, 第十一書(2), 答劉平甫書, 第六書, 答吳耕老書, 答何叔京書, 第二書, 第七書(4), 第十書(2), 第十一書(2), 第十四書, 第二十書, 第二十九書, 答連嵩卿第三書(2), 答黃子厚書, 答胡廣仲第二書, 第三書(3), 第四書(2), 第五書(5), 與吳晦叔書, 答吳晦叔第八書, 答石子重第三書, 第五書, 第九書(2), 答陳明仲第七書, 第十四書, 第十五書, 答李伯諫書(4), 正如用琵琶秦箏方響鬻栗奏雅樂節拍雖同而音韻乖矣○答吳公濟書, 答林擇之書, 第七書, 第九書, 第十四書(2), 第十六書, 第三十書(2), 答蔡季通書, 第四書, 第五書(3), 第六書(4), 第七書(2), 第八書, 第十二書, 第十三書, 答方伯謨書, 第二書, 第四書, 答梁文叔第三書, 答任伯起書, 答江德功第二書(2), 第十書, 第十一書, 答黃直翁書, 答曹子野書, 答虞士朋書(2), 答游誠之書(2), 第三書, 答嚴居厚書, 答丘子野書, 答丘子服書, 答李深卿書(2), 答吳德夫書, 答楊子直第四書, 第五書, 答呂季克書, 答廖子晦書(2), 第二書(3), 第八書(4), 第九書, 第十書(2), 第十一書, 第十四書(3), 第十六書, 第十八書, 答汪太初書, 答呂道一書, 答詹兼善書, 答曾致虛書, 第二書, 答黃</p>

		<p>商伯第二書(3), 答詹元善第二書, 第三書(2), 答潘叔度第二書, 第五書, 答潘叔昌第五書(3), 第七書, 答胡伯逢第二書(2), 第三書(2), 答黃直卿第三書, 答呂子約書, 第四書, 第六書, 第七書, 第九書, 第十書, 第二十三書, 第二十四書(2), 第二十五書, 第二十六書, 第三十書, 第三十一書, 第三十七書, 第四十書, 第四十二書(2), 第四十四書, 第四十五書, 第四十七書, 答王子合第七書(2), 第十三書, 第十七書, 第十八書, 答陳庸仲第三書, 第四書, 答楊元範書, 答潘恭叔第七書(2), 第九書, 答程正思第十六書, 答周舜弼第七書, 答黃子耕第三書, 第七書別紙, 第八書, 答萬正淳第三書, 第四書, 答吳伯豐第二書, 第六書, 第十二書, 第十九書(3), 第二十二書, 答都昌諸生第二書, 答劉公度書, 答劉季章第九書, 第十一書, 第十三書, 第十五書, 第十六書, 第十七書, 第十八書, 答許景陽書, 與陳伯堅書, 答胡季隨第二書, 第三書, 第五書, 第七書, 第十書, 第十三書(2), 第十四書, 答沈叔晦第三書</p>
<p>卷四</p>	<p>書(125)</p>	<p>答孫季和書(3), 第二書(2), 答諸葛誠之書, 答項平父書, 第四書, 第八書, 答王季和第二書(2), 答陳正己書, 答路德章書, 第四書, 答時子雲書(2), 答王伯禮書, 答楊深父第二書, 答趙幾道第二書, 答劉仲則書, 答徐斯遠第二書, 答趙昌甫書, 答徐彥章第四書, 答潘謙之第二書, 答李守約第八書, 答包敏道第二書, 答熊夢兆書, 答趙子欽第七書, 答徐載叔書, 答葉正則第四書(2), 答徐居厚書, 答方賓王書, 第五書, 第七書, 第十五書, 答陳師德第二書, 答鄭子上第六書, 第十書(2), 第十四書, 答林一之第三書, 答陳安卿書, 第二書(2), 第三書, 答張仁叔書(2), 答謝成之書, 答黃道夫書, 答王欽之第二書, 答胡平一書(2), 答楊志仁第二書, 答宋深之書, 答陳器之第二書(2), 答葉味道第三書, 答徐志伯書, 答張敬之書(2), 答汪叔耕書(2), 第二書, 答楊子順第三書(2), 答陳衛道第二書, 答余正叔書, 答余方叔書, 答周純仁書, 答周南仲第二書, 答汪易直書, 答曾無疑第四書(4), 第五書, 第六書, 答曾擇之第二書, 答潘子善第五書, 答歐陽希遜書, 答嚴時亨書, 第三書(2), 答曾光祖第五書, 答曾景建書, 第四書, 答張元德書, 第三書, 第四書, 第七書(3), 答甘吉甫第二書, 答杜仁仲書, 答黎季忱書, 答李晦叔第五書, 答李敬子余國秀書, 答胡伯量書, 答李繼善第二書, 答甘道士書, 答陳道士書, 答葉仁父書, 答孫敬甫第四書, 第五書, 答余正甫第二書, 答吳元士書, 答鞏仲至第二書, 第三書, 且以李杜言之則如李之古風五十首杜之秦蜀紀行遣興出塞潼關石壕夏日夏夜諸篇律詩則如王維韋應物輩亦自有蕭散之趣未至如今日之細碎卑冗無餘味也○第四書(2), 第五書(3), 第六書(2), 第十七書, 第十八書, 第十九書, 答江彥謀書, 答卓周佐書, 答陳馨書, 與湖南諸公論中和書, 答或人第七書, 第十書</p>
	<p>雜著(71)</p>	<p>記晁氏卦爻象說, 琴律說, 易象說, 舜典象刑說(2), 明道論性說, 定性說</p>

		觀心說(2), 仁說, 王氏續經說(2), 養生主說, 跪坐拜說(3), 井田類說(3), 梲枹議, 學校貢舉私議(4), 讀唐志, 讀大紀, 讀兩陳諫議遺墨(2), 記疑, 偶讀漫記, 北辰辨(2), 聲律辨(9), 開阡陌辨(4), 皇極辨(3), 蘇黃門老子解, 古史餘論(3), 讀尊孟辨(2), 胡子知言疑義, 論諸生, 策問, 記解經, 讀書之要, 白鹿院揭示○右五教之目, 右爲學之序, 右修身之要, 右處事之要, 右接物之要, 增損呂氏鄉約○德業相勸(2), 過失相規(2), 禮俗相交, 患難相恤, 休致後客位咨目
	序(64)	裨正書序, 家藏石刻序, 論語要義目錄序(2), 論語訓蒙口義序, 戊午讜議序(2), 家禮序(2), 太極通書後序, 語孟集義序, 綱目序(2), 中和舊說序, 王梅溪文集序(3), 傅伯拱字序, 送郭拱辰序, 詩集傳序(6), 呂氏讀詩記序, 劉甥瑾字序, 李公奏議序(2), 潘公文集序, 易學啓蒙序, 律呂新書序(4), 小學題辭, 題小學, 大學章句序(7), 中庸章句序(12), 豐清敏遺事(後)序, 武夷圖序, 林貫之字序, 黃子厚詩序, 楚辭後語目錄序, 楚辭集註序(2), 三先生論事錄序
	記(51)	芸齋記, 畏墨菴記, 存齋記, 歸樂堂記(2), 通鑑室記, 劉氏墨莊記, 崇安社倉記(2), 百丈山記, 雲谷記(4), 名堂室記(3), 建康明道先生祠記, 婺源縣學藏書閣記(2), 復齋記, 濂溪先生書堂記, 建陽縣學藏書記(2), 隆興濂溪先生祠記, 曲江樓記, 臥龍菴記, 西原菴記, 知樂亭記, 龍巖縣學記, 養濟院記, 韶州濂溪先生祠記, 鄂州社稷壇記, 景行堂記, 金華社倉記(2), 長灘社倉記, 大關社倉記, 漳州高公祠記, 劉氏義學記, 應城謝上蔡祠記, 壯節亭記, 黃州二程先生祠記, 邵州濂溪先生祠記(3), 福州經史閣記
卷五	跋(40)	跋陳了翁與兄書, 跋張敬夫詩, 書近思錄後(2), 跋通鑑紀事本末, 跋劉元城言行錄, 記大學後, 書中庸後, 書麻衣心易後, 跋李少膺脞說, 跋黃仲本朋友說(2), 跋南上人詩, 跋顏魯公棗里詩, 書劉子澄所編曾子後, 書臨漳所刊四經後○書, 詩(2), 春秋, 跋王荊公奏藁, 跋唐人牧牛圖, 跋余巖起集, 題趙清獻事實後(2), 跋曾南豐帖, 跋三家禮範, 跋郭長陽醫書, 跋邵康節檢東二大字, 書二程語錄後, 書廖德明仁壽廬條約後, 書河圖洛書後, 跋十七帖, 跋韓公與歐陽公帖, 跋米元章下蜀江山圖, 跋病翁先生詩, 跋東坡竹石, 跋陳大夫詩, 書參同契考異後, 題參同契後, 跋益公誠齋送甘叔懷詩後
	銘(5)	書字銘, 劉屏山二琴銘○復齋, 蒙齋, 紫陽琴銘, 書廚銘
	箴(2)	敬齋箴, 調息箴
	贊(17)	原象(2), 警學, 復卦贊, 六先生畫像贊○濂溪, 明道, 伊川, 康節, 橫渠, 涑水, 張敬夫畫象贊, 呂伯恭畫象贊, 程正思畫象贊, 書畫象自贊, 聚星亭畫屏贊(3)
	表(4)	浙東到任謝表, 漳州到任謝表, 天申節賀表, 會慶節賀表

	疏(2)	天申節功德疏, 臥龍潭送水文
	啓(3)	與張憲啓, 與正言啓, 謝人投生日詩啓
卷六	祝文(5)	奉安蘇丞相祠文, 廣佑廟謝雨文, 刊四經告先聖文, 滄洲告先聖文, 告考妣文
	祭文(16)	祭籍溪胡先生文, 祭延平李先生文(2), 祭魏元履文, 祭劉參議文, 祭汪尚書文, 祭姚式文, 祭劉共父文, 又祭張敬夫文, 祭鄭自明文, 祭陸子壽文, 祭呂伯恭文(2), 祭劉子澄文, 祭劉子禮文, 祭南軒墓文
	碑(4)	靜江府虞帝廟碑, 少傅劉公子羽神道碑, 直學士吳公芾神道碑, 直祕閣范公如圭神道碑
	墓表(3)	屏山先生劉公子翬墓表, 聘士劉公勉之墓表, 學士黃公中墓誌銘
	墓誌銘(3)	從事郎劉君珩墓誌銘, 直閣潘公墓誌銘, 直學士李公春墓誌銘
	行狀(12)	少師張公行狀(2), 少師陳公俊卿行狀(6), 皇考吏部朱公行狀, 延平先生李公行狀, 直祕閣朱公行狀(2)
	事實(1)	濂溪先生事實記
	公移(9)	南康榜文, 勸農文一(5), 勸農文二, 勸農文三, 約束榜
	續集_書(33)	答黃直卿書○以下續集(4), 答蔡季通書(3), 第二書(2), 答蔡伯靜書, 答蔡仲默書(2), 答劉晦伯書(3), 與田侍郎書, 與章侍郎書, 答羅參議書, 與趙昌甫書, 答江隱君書, 答丘子服書, 與長子受之書(9), 跋陸務觀詩, 跋魏丞相帖, 答李孝述問目
	別集_書(28)	劉共甫第二書○以下別集(3), 向伯元第四書, 林井伯書, 劉德修第八書, 祝汝玉書, 劉智夫第八書, 程可久第二書, 鄭尚書書, 程允夫第二書, 第五書(2), 孫季和第五書, 劉子澄第三書, 劉共甫第三書, 第七書, 廖子晦書, 向伯元第七書, 第十四書, 第十七書, 方耕道書(2), 林擇之第十四書, 黃商伯書(2), 楊伯起書, 吳唐卿書
	別集_雜著(1)	釋氏論下
	別集_公移(1)	勸農文
	遺集_書(6)	與程允夫書○以下遺集, 答或人第三書, 與長子受之書, 第二書, 與子書, 與子埜等書
	遺集_雜著(44)	童蒙須知, 衣服冠履第一(7), 語言步趨第二(3), 灑掃帚潔第三(2), 讀書寫文字第四(5), 雜細事宜第五(4), 勸學文, 不自棄文(4), 宗法條目, 家政, 家訓, 家居要言(14)
	遺集_序(2)	陰符經考異序(2)
	遺集_跋(2)	書太極圖解後, 書藏書閣東楹
	計	1,140句

문체별 수록 구절은 書가 716구절로 가장 많고, 雜著가 116구절로 그 다음이며, 序가 66구절, 記가 51구절, 跋 42구절, 封事 29구절, 贊 17구절, 祭文 16구절, 奏劄와 行狀이 각 12구절이며, 그 외 문체는 10편 이하에 해당한다. 서간문이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는 것은 절록의 저본에 해당하는 『주자대전』과 『주자대전속집』, 『주자대전별집』, 『주자대전유집』의 특징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주자대전』은 서간문이 전문 중 65%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주문수권」에서 서간문 다음으로 많은 구절이 절록된 잡저의 경우, 『주자대전』전문 중 3%의 적은 비율을 보임에도 7.7%를 차지하는 발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구절이 절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서 간행된 주자 관련 선본 12종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상소문과 서간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잡저의 선별은 적은 경향을 보인다.²⁸⁾ 반면, 「주문수권」은 잡저로부터 절록한 구절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잡저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역에 대해 세밀한 논의를 서술한 〈記晁氏卦爻象象說〉과 〈易象說〉, 堯舜이 형벌을 집행하는 방법과 뜻을 주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舜典象刑說〉, 역대 田政을 비교 및 분석하고, 그 중에서 정전제가 가장 농민에게 부담이 적다는 주희의 주장이 담긴 〈井田類說〉, 주돈이와 二程의 태극에 대한 논설에 따라 미진한 부분을 설명한 〈皇極辨〉 등 주희의 학술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조선시대 서원 규약의 기본이 된 〈白鹿洞書院學規〉, 조선시대 향약의 모범이 되어 언해본이 간행되기도 한 〈增損呂氏鄉約〉 등 조선의 유교 풍속의 근원이 되는 내용에 해당된다.

「주문수권」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권이 목차 없이 卷首題와 卷次 표기 이후 곧바로 절록한 본문이 시작되며, 본문은 절록된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각 구절의 출처인 작품명이 小字雙行으로 표시되어 있는 식이다. 「주문수권」내에 소자쌍행으로 주석이 추가된 부분은 2구절이 있는데, 권3에 수록된 〈答黃直卿書第三書〉와 권5의 〈論語要義目錄序〉가 그것이다.〈그림 1〉참조) 〈답황직경서제삼서〉 절록 부분에서 소자쌍행으로 처리된 부분은 주자가 『태극도』의 수에 대해 ‘1에서 2로(剛/柔), 2에서 4(剛善/剛惡/柔善/柔惡)로 되었다가 1(中)을 더하여 5행이 되어 아래로 만물에 미칩니다.(太極之數, 亦自一而二 剛柔, 自二而四 剛善剛惡柔善柔惡, 遂加其一 中, 以爲五行而遂下及於萬物)’라고 설명하면서 2와 4, 그리고 더해진 1이 무엇인지 나타낸 부분이다. 〈논어요의목록서〉의 경우, 『古論語』 21편에 대해 ‘堯曰」이하

28) 『朱文旨訣』에 3편, 『朱文酌海』에 21편이 수록되었고, 『節約通編補遺』에 15편 수록되어 있다.

장 子張問을 나누어 한 편으로 구별한 것은 魯共王이 공자의 舊宅을 무너뜨린 곳에서 그것을 얻었다.’는 설명과 『齊論語』 22편에 대해 ‘問王」과 「知道」 두 편이 있다.’라고 보충한 부분을 소자쌍행으로 표기하였다. 해당 두 부분을 제외하면, 「주문수권」의 모든 본문은 비평이나 주석 없이 大字로 쓰여 있다. 또한, 한 구절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같은 작품 안에서 여러 구절이 절록된 경우에 줄을 바꾸어 신고, 이외에는 글자를 낮추거나 줄을 바꾸는 일 없이 본문을 이어 수록하고 있다. 한 행에 글자가 가득 차서 줄을 바꾸는 것으로 구절이 끝난 것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절이 시작되는 첫 글자의 오른쪽 상단에 작은 반점을 찍어 구분하였다(〈그림 1〉참조).



〈그림 1〉 왼쪽부터 차례로 권3 〈答黃直卿書第三書〉의 小字雙行, 권5 〈論語要義目錄序〉의 小字雙行, 반점으로 새로운 구절을 표시한 예

「주문수권」의 구성을 검토할 때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절록된 구절만을 대자로 수록하여 해당 구절의 출처가 되는 작품의 제목이나 해당되는 문체 등의 정보는 비교적 소략하거나 아예 생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문수권」이 속해있는 초본 『사부수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부수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문수권」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별도의 목차 구성이나 문체

별 분류 없이 『주자대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巨帙의 『주자대전』을 대상으로 정조가 권점 및 비점 작업을 진행하여 편찬한 문헌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57명과 주고받은 서간문 100편을 총 6권으로 편찬한 『주서백선』은 『주자대전』보다 적은 양의 『주자서절요』를 대상으로 뽑은 선본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수신하는 인물별로 분류하여 같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한곳으로 모아두고, 첫 편을 〈上延平李先生〉으로, 마지막 편을 〈答黃直卿〉으로 배치하여 師承 관계를 밝히고 학문의 전수를 드러내는 등 세밀한 의도에 따라 그 배치 순서를 변경하였던 것²⁹⁾과는 상반된 면모를 보여주는 구성이다.

또한, 「주문수권」 본문 내에 소자쌍행으로 표시된 절록 구절의 출처, 즉 작품명이 『주자대전』에 수록된 본래의 작품명과 다른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대체로 길고 장황한 제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문의 제목은 〈江州重建濂溪先生書堂記〉에서 ‘강주 지역의 증건한(江州重建)’을 생략하고 〈濂溪先生書堂記〉로 요약하거나 〈隆興府學濂溪先生祠記〉, 〈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 등에서는 ‘府學’과 ‘州學’ 등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을 생략하여 〈隆興濂溪先生祠記〉, 〈黃州二程先生祠記〉로 표기하는 식이다. 발문의 경우, 〈跋張敬夫所書城南書院詩〉를 〈跋張敬夫詩〉로 줄이고, 〈書李參仲家藏二程語錄後〉는 〈書二程語錄後〉로 줄여 부가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소장처를 생략하였고, 제문에서는 〈祭魏元履國錄文〉, 〈祭劉共父樞密文〉, 〈又祭張敬夫殿撰文〉, 〈祭陸子壽教授文〉, 〈祭呂伯恭著作文〉 등의 작품명에서 ‘國錄’, ‘樞密’, ‘殿撰’, ‘教授’, ‘著作’ 등의 관직명을 일괄적으로 생략하여 표기하고 있어, 일정한 규칙을 둔 듯하다.

특히 碑銘에 해당하는 글들은, 직위나 시호 등은 적절하게 생략하는 반면, 원전 작품명에는 없는 이름은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直祕閣贈朝議大夫范公神道碑〉는 〈直祕閣范公如圭神道碑〉으로, 〈從事郎監潭州南嶽廟劉君墓誌銘〉은 〈從事郎劉君環墓誌銘〉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와 같이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작품명 표기는 『주서백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정조는 『주서백선』 편찬 시 모든 서간문의 제목을 “與某人書” 혹은 “答某人書”와 같은 형식으로 답서 여부와 수신인의 이름으로만 일괄 표기하여 효율적인 편차 구성을 도모하였다. 「주문수권」은 절록한 구절을 강조

29) 윤현정, 「朝鮮朝 正祖 御撰 選本の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하여 그 출처는 비록 소자로 간단하게 표기하는 구성으로 편찬되었지만, 그 작은 글씨의 제목 표기도 번다한 경우, 관직명을 일체 생략한다거나 인물과 관련된 글은 해당인의 이름을 명시한다거나 하는 나름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요약하고자 했던 정조의 뜻이 반영된 문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IV. 절록 작품 비교

1. 「주문수권」에 절록되지 않은 작품

「주문수권」과 『주서백선』이 정조의 주자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각기 다른 편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수록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문헌에 선별 및 절록된 작품을 비교해보면 『주서백선』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주문수권」에는 수록되지 않은 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연평이선생〉, 〈答張敬夫〉(『주자대전』 卷25 제3서), 〈答張敬夫〉(『주자대전』 卷30 제9서), 〈答張敬夫〉(『주자대전』 卷31), 〈與李誠父〉, 〈與劉子澄〉(제5서), 〈與劉共父〉(『주자대전』 別集 卷권1), 〈答許順之〉(제14서), 〈答程允夫〉, 〈答胡廣仲〉(제2서), 〈答李伯諫〉, 〈答楊子直〉, 〈答李濱老〉, 〈答呂子約〉(제39서), 〈答徐子融〉 등 총 15편이 그것이다. 「주문수권」은 『주자대전』 全文을 대상으로 하여 절록하였기 때문에 주희의 서간문 중 100편만을 선별한 『주서백선』보다 그 절록의 범위가 훨씬 넓은에도 불구하고 『주서백선』의 15% 가량에 해당하는 수의 서간문이 「주문수권」에는 절록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주서백선』에만 수록된 작품을 살펴보면, 주로 주자의 주요한 학술 사상 및 논의를 담고 있거나 주자의 개인적인 조언 및 의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답장경부〉는 신하가 군주를 보좌하는 태도, 天命에 대한 담론, 張栻의 『洙泗言仁錄』이 가진 문제점 등의 내용이 담긴 서간문이며, 〈답정윤부〉는 소동파를 옹호하는 정윤부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전하는 서간문이다. 〈여유자징〉은 사마광의 잘못된 평가를 비판하였고, 〈답호광중〉은 謝上蔡의 견해에 대한 비판, 〈답이백간〉은 유교와 불교의 차이점, 〈답양자직〉은 太極과 動靜의 관계와 持敬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으

며, <답여자약>은 未發과 已發의 문제에 대해 程子が 착오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답서자용>은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에 대한 논의가 담겨있다. 편지 수신자의 행적에 대한 주희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서간문을 살펴보면, <여이성보>는 연평 선생의 아들인 이성보가 관직에 진출한 것을 축하하고 당부를 전하는 내용이며, <여유공보>는 임금의 잘못을 간하지 않은 유공에 대한 책망을, <답허순지>는 禪學에 물든 허순지에게 성인의 학문에 대한 조언을, <답이빈로>는 유교의 정통성을 지키는 학문을 家傳한 이빈로를 존중하는 뜻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정조가 『주서백선』을 편찬할 때에, ‘태극’과 ‘동정’, ‘理氣論’, 그리고 ‘仁說’ 등 주자의 사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비롯하여, 다른 학자들이 정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조 본인의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 주자의 은미한 뜻이 담겨 있다고 판단한 내용, 그리고 이 문헌의 독자가 될 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위주로 선별³⁰⁾하였기 때문이다. 『주서백선』은 이와 같은 뚜렷한 편찬 목적으로 인해 정조 편찬 주자서 중에서도 유독 이질적인 성격을 띠는데, 현존하고 있어 그 구성과 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조 편찬 주자서인 『주자회선』에도 <상연평이선생>과 <답양자직>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주서백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반면, 「주문수권」은 글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절만을 절록하는 방식의 초본이므로, 주희의 깊이 있는 학술 사상을 온전하게 전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문인들을 正文으로 薰陶하기 위한 교육용 독본이라는 명확한 독자 대상과 편찬 목적을 지닌 『주서백선』과 달리 「주문수권」은 대상 독자층을 설정한 문헌이 아니며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비권을 통해 초록하는 편찬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성격이 강한 문헌이므로, 두 문헌의 수록 작품 간에 출입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조선조 간행된 주자 관련 선본 13종에 누적 수록 횟수가 높은 작품³¹⁾임에도 「주문수권」에 절록되지 않은 작품으로는, <癸未垂拱奏劄>(6회), <答宋容之>(5회), <丞相李公奏議後序>(4회) 등이 있다. <계미수공주차>는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30) 앞의 논문.

31) 『朱子封事抄略』, 『白鹿洞規解』, 『朱子經筵講義』, 『朱子書節要』, 『朱子文錄』, 『朱文旨訣』, 『朱文酌海』, 『朱書要類』, 『朱子封事』, 『節酌通編』, 『朱文抄選』, 『敬齋箴集說』, 『朱書百選』 등의 13종에 누적 수록된 작품을 헤아린 결과이다. 최경훈,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대학의 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주차이며, <답송용지>는 과거를 위한 학문을 경계하면서 올바른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는 서간문이다. <승상이공주의후서>는 宣和와 靖康의 변란 때 임금이 李綱의 奏議를 수용하지 않다가 남송이 치욕을 받게 된 사정을 기록하면서 이강의 충절을 칭송한 내용이다. 이는 「주문수권」의 편찬자가 정조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계미수공주차>에 담긴 군주의 덕목이나 <답송용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올바른 독서법 등은 정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이미 체득한 내용이므로 굳이 절록하여 암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聖賢이 立言하신 본뜻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이미 터득했더라도 또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그 의리가 마음속에 꼭 젖어들고 살갓과 골수에 스며든다면 그때 가서야 학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³²⁾라는 구절은 정조가 평소 빈번하게 언급하던 자신의 학습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글 뜻을 깊이 음미하는 것은 단지 참을성 있게 독서하는데에 달렸고, 잘 기억하려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³³⁾는 언급이나 “지금 사람들은 作文은 손으로만 하고 讀書는 입으로만 하여, 그저 눈으로만 봐 넘길 뿐 조금도 마음에 붙여 두지 않는다.”³⁴⁾라고 한탄하며 “독서는 體驗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으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心身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수레 다섯대에 실을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³⁵⁾라는 발언 등이 주차가 말한 독서법을 정조가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승상이공주의후서>를 절록하지 않은 것 역시, 정조는 이미 세손 시절에 『宋史』 <李綱列傳>을 옮겨 적으며³⁶⁾ 숙독하였고, 즉위년에 尊賢閣에서 金鍾秀와 소견할 때 <이강열전>을 읽어오라고 명령한 뒤 “내가 《육선공주의》를 좋아하여, 일찍이 《李忠定奏議》보다 낫다고 여겼다.”고 하며, “神宗이 너무 성급하게 다스리려 들다가 壤亂을 불러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후세에 이것을 경계로 삼아 지나치게 망설

32) 『朱子大全』 卷58, 「答宋容之」, “以求聖賢立言之本意. 雖已得之, 亦且更如此反復玩味, 今其義理浹洽於中, 淪肌浹髓, 然後乃可言學耳.”

33)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5 文學 5, “咀嚼只在耐讀, 強記須筭錄.”

34)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5 文學 5, “今人作文則取之於手, 讀書則舐之以口, 只要挨遣眼前, 不曾貼向心裏.”

35)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2 文學 2, “讀書最好體驗, 苟不能精察明辨, 體貼心身, 則雖日誦五車, 更管自己何事.”

36) 『日省錄』, 英祖 46年(1770) 6月 4日, “抄宋史, 李綱傳.”

이는 것도 염려스러운 일이다.”라고 평하였던 기록³⁷⁾을 통해, 정조 자신이 생각하기에 육선공만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강의 충절에 대해 강조한 해당 글을 절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주자회선』에는 〈계미수공주차〉와 〈답송용지〉, 〈승상이공주의후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점을 통해, 「주문수권」은 여타 조선 시대에 간행된 주자 관련 선본들이나 정조가 이전에 편찬한 주자서와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조선에서 편찬된 주자 관련 선본들은 대부분 국왕 진상이나 서원 교육, 강학, 경연 진강 등에 활용한 목적으로 편찬된 관계로 이와 같이 군주의 덕목이나 올바른 독서법, 충절한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임금의 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수록한 빈도가 높았지만, 정조는 이미 이러한 내용은 인지하였고 실천하고 있어 재차 상기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절록하지 않았으며, 특히 「주문수권」은 대상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편찬한 문헌이라기보다, 오히려 편찬 후에 정조 스스로가 곁에 두고 여러 번 통독하며 암송하기 위한 문헌³⁸⁾이므로 해당 작품들이 절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 「주문수권」에 절록된 작품

반대로, 조선조 간행된 주자 관련 선본 13종 누적 수록 횟수가 높은 작품 중 「주문수권」에도 절록되어 있는 작품으로는 〈甲寅行宮便殿奏筭〉(제2편, 7회), 〈己酉擬上封事〉(6회), 〈戊申封事〉(6회), 〈答潘子善〉(제5서, 5회), 〈戊午讜議序〉(4회), 〈王梅溪文集序〉(4회), 그리고 〈敬齋箴〉(4회) 등이 있다. 〈갑인행궁편전주차〉는 주희가 영종에게 올린 〈행궁편전주차〉 중 두 번째 글로, 경학 위주의 관리 선발과居敬과持志로부터窮理의 순서로 학문을 탐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정조는 이 글에서 두 구절을 절록하여 「주문수권」에 수록하였는데, 이하와 같다.

37) 『日省錄』, 英祖 52年(1776) 10月 23日, “子命鍾秀讀奏李綱傳. 子曰 予好陸宣公奏議, 嘗以爲勝於李忠定奏議. 鍾秀曰 文兼古今, 言切事情矣. 子曰 神宗求治太急, 以致壤亂, 良可歎也, 而後世之以是爲戒, 過於因循, 亦可悶也.”

38) 윤현정, 「正祖 親撰『八家手圈』의 編纂에 관한 小考」,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학문하는 도리는 이치를 탐구하는 것[窮理]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이치를 탐구하는 요체는 독서에 달려 있으며, 독서하는 방법은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읽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읽는 근본은 공경함을 유지한 채로[居敬] 의지를 다잡는 것[持志]에 달려 있으니,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이치입니다.³⁹⁾

마음이란 지극히 텅 비고 신령한 것으로, 헤아릴 수 없이 신묘하면서 언제나 한 몸의 주재가 되어 만사의 강령을 쥐고 있으며, 단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한 번 마음이 내달리고 날아올라 이 몸뚱이의 바깥에서 외물에 대한 욕망[物欲]을 좇아간다면 이 한 몸에는 주재가 없게 되고, 모든 일에는 강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위아래를 쳐다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사이에도 이미 그 몸이 어디에 있는 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성인의 말을 되풀이해서 곱씹어보고 여러 사물을 비교 고찰해서 의리가 지당한 결론을 탐구할 수 있겠습니까?⁴⁰⁾

〈갑인행궁편전주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관리 선발에 대한 부분은 절록하지 않았고 ‘거경궁리’의 이치와 마음의 主宰에 대해 설명한 핵심 구절을 절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경재잠〉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정조가 「주문수권」에 〈경재잠〉의 대부분 구절을 절록한 사실과 연결된다. 아래는 〈경재잠〉의 전문 중 「주문수권」에 절록된 구절을 밑줄 처리한 것이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매를 존엄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 앉혀 가지고 있기를 마치 상제를 대하듯 하라. 발 가짐은 반드시 무겁게 할 것이며, 손가짐은 반드시 공손하게 하여야 하니, 땅은 가려서 밟아, 개미집 두덩이 까지도 돌아서 가라. 문을 나설 때는 손님을 뵈듯 해야 하며, 일을 할 때는 제사를 지내듯 조심조심하며, 흑시라도 안이하게 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입 다물기를 병마

39) 『朱子大全』 卷12, 「甲寅行宮便殿奏筭」, “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讀書, 讀書之法, 莫貴於循序而致精, 而致精之本, 則又在於居敬而持志, 此不易之理也.”

40) 『朱子大全』 卷12, 「甲寅行宮便殿奏筭」, “心之爲物, 至虛至靈, 神妙不測, 常爲一身之主, 以提萬事之綱, 而不可有頃刻之不存者也. 一不自覺而馳騖飛揚, 以徇物欲於軀殼之外, 則一身無主, 萬事無綱. 雖其俯仰顧盼之間, 蓋已不自覺其身之所在, 而況能反覆聖言, 參考事物, 以求義理至當之歸乎”

막듯이 하고, 잡념 막기를 성곽과 같이하여, 성실하고 진실하여 조금도 경솔히 함이 없도록 하라. 동쪽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지 말며, 북쪽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지 말며, 일을 당하여서는 그 일에만 마음을 두어, 그 마음 씬을 딴 데로 가지 않도록 하라. 두 가지, 세 가지 일로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직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피도록 하라. 이러한 것을 그치지 않고 일삼아 하는 것을 곧 持敬이라 하니,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어그러짐이 없고, 겉과 속이 서로 바로잡아 주도록 하라. 잠시라도 틈이 벌어지면 사육이 만 가지나 일어나 불꽃도 없이 뜨거워지고, 얼음 없이 차가워지느니라.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고 삼강이 없어지고 구법(九法) 또한 못 쓰게 될 것이다. 아!小子들아! 깊이 마음에 새겨두고 공경할지이다. 먹을 갈아 경계하는 글을 씬으로써 감히 靈臺에 고하노라.⁴¹⁾

〈경재잡〉 중에서 ‘持敬’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구절들만을 효율적으로 요약하여 절록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주자의 사상 중 ‘지경’의 개념과 그 방법을 특히 중요시하였는데, 때문에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적어서 항목을 새로이 나누어 『주자선통』을 편찬할 때에 ‘지경’ 항목을 따로 두었고⁴²⁾, 〈경재잡〉에서 주자가 말한 바와 같이 “단정하고 엄숙한 자세는 비록 외면의 공부이지만, ‘지경’을 하려면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는 딴 방도가 없다. 그리고 ‘지경’은 무엇보다 먼저 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⁴³⁾라고 말하기도 했으

41) 『朱子大全』卷85, 「敬齋箴」,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或輕. 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弗貳以二, 弗參以三. 惟精惟一, 萬變是監. 從事於斯, 是日持敬. 動靜無違, 表裏交正. 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冰而寒. 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既淪, 九法亦斁. 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

42) 『弘齋全書』卷179, 「羣書標記 1」○ 御定 1 朱子選通, “辛丑, 更取大全語類, 手自選錄, 分門類編. 其目曰小學, 曰爲學之方, 曰存養, 曰持敬, 曰靜, 曰知行, 曰致知, 曰力行, 曰克己改過, 曰立心處事, 曰理欲義利君子小人之辨, 曰出處, 曰教人, 曰人倫師友, 曰讀書法, 曰讀諸經法, 曰論解經, 曰讀史, 曰史學, 曰大學, 曰論語, 曰孟子, 曰中庸, 曰易, 曰書, 曰詩, 曰春秋, 曰禮, 曰樂, 曰性理, 曰理氣, 曰鬼, 曰道統, 曰諸子, 曰歷代, 曰治道, 曰賦, 曰詞, 曰琴操, 曰古詩, 曰律詩, 曰絕句, 曰詩餘, 曰贊, 曰箴, 曰銘.”

43) 『弘齋全書』卷178, 日得錄 18 訓語 5, “整齊嚴肅, 雖是外面工夫, 而欲爲持敬, 舍此難求, 持敬先從不臥始.”

며, 策問의 주제로 삼거나⁴⁴⁾, 經史講義나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한 故寔에서도 여러 번 논의⁴⁵⁾하기도 하였다. 즉, 「주문수권」은 초본의 형태로 편찬된 문헌이므로 기본적으로 편찬자 정조가 주자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기유의상봉사〉는 주자가 즉위한 광종에게 열 가지 정치적 조언을 전하는 내용인데, 정조는 그 중 첫 번째 조언에서 1구절, 세 번째 조언에서 2구절, 일곱 번째 조언에서 2구절을 절록하여 총 5구절을 수록하였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편폐를 멀리하고 충직을 가까이 할 것을 말한 세 번째 조언 중에서 절록한 두 구절인데, ‘썩이 삼밭에서 자라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곧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물들이지 않아도 검다’⁴⁶⁾, ‘군자와 소인은 얼음과 솥이 서로 용납하지 않고, 향기와 악취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껏 군자와 소인을 함께 거두어 길렀을 때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⁴⁷⁾가 그것이다. 군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전자는 주희가 ‘신은 듣건대(臣聞)’로 시작하며 직접 인용한 구절이고, 후자는 ‘빙탄’과 ‘훈유’를 통해 선인과 악인 혹은 군자와 소인 등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을 비유할 때 후대에 이르기까지 흔히 인용되는 구절에 해당한다. 공부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 다른 주자 선본에 다수 수록된 〈답반자선〉(제5서)에서도 정조는 해당 서간문의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문득 자기의 뜻으로 남의 말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⁴⁸⁾라는 짧은 구절만을 절록하고 있는데, 널리 쓰이는 ‘障斷’의 유래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글의 전체 맥락과 다소 동떨어져 있더라도 자주 쓰이는 구절이나 주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로서 인용한 구절에 대한 정조의 선호 양상은 『사부수권』은 물론, 그보다 전에 편찬되었던 정조의 다른 선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⁴⁹⁾으로, 「주문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널리 쓰이는 속담이나 비유 등을 절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4) 『弘齋全書』 卷50, 策問 3 ‘敬’ 三日製 ○ 辛亥年(1791).

45) 『弘齋全書』 卷82, 經史講義 19 ○ 中庸; 『弘齋全書』 卷129, 故寔 1 ○ 大學.

46) 『朱子大全』 卷12, 「己酉擬上封事」, “蓬生麻中, 不扶而直, 白沙在泥, 不染而黑.”

47) 『朱子大全』 卷12, 「己酉擬上封事」, “君子小人如冰炭之不相容, 薰蕕之不相入. 未有可以兼收并蓄而不相害者也.”

48) 『朱子大全』 卷60, 「答潘子善」, “未可便以己意障斷它人話頭.”

49) 윤현정, 「正祖 親撰 「兩京手圈」의 編纂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91, 한국서지학회, 2022.

V. 결론

본고의 연구대상인 「주문수권」은 주희의 『주자대전』을 저본으로 하여 1798년 4월부터 약 50일간 정조가 절록한 약 1,140여개의 구절들을 모은 정조의 초본 중 일부이다. 이 문헌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조는 주돈이와 정호, 정이 형제, 그리고 장재 4인의 글을 대상으로 뽑은 구절을 추가하여 『오자수권』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의례』, 『주례』, 『예기』 등의 삼례, 『사기』와 『한서』, 육선공의 주의문,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經·史·子·集 4부의 구성을 갖추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권점과 비점을 치는 방식으로 편찬한 초본 『사부수권』으로 완성되었다.

문헌 편찬은 다른 조선의 임금에게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업적이지만, 주자가 남긴 모든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연구사를 섭렵하여 다양한 구성의 주자 관련 문헌을 직접 편찬하는 등 주자학 연구와 존숭에 많은 족적을 남긴 것은 정조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사례이다. 그 중, 비권 방식을 적용하여 초본으로 편찬하고, 이를 단독 문헌이 아닌 다른 주제와 한 질을 이루게끔 구성한 경우는 정조 편찬 주자 관련 문헌 중 「주문수권」이 유일하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정조의 주자 관련 문헌 편찬을 검토하는 방향의 선행 연구는 다수 제시되었지만, 「주문수권」이 아닌 『주서백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사부수권』전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문수권」에 대한 분석이 다소 세밀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주문수권」의 구성 방식 상의 특징을 『주서백선』과 비교하고, 그 절록된 내용을 『주서백선』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편찬된 주자 관련 문헌 13종에 누적 수록된 작품과 교차하여 수록 및 미수록 작품을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주문수권」에 담긴 정조의 『사부수권』 편찬 목적을 추측하고, 정조의 주자학 흐름을 분석함에 있어 이 문헌의 가치를 제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문수권」은 정조 편찬 주자 관련 문헌 중 6번째로 편찬된 문헌으로, 비점과 권점을 쳐서 초록하는 방식을 통해 ‘大-統’ 작업의 첫 단계인 ‘約’ 단계에 해당하는 문헌이다. 정조는 비권 행위 자체로 주자의 뜻을 본받는 것으로 여겼고, 이 과정에 초계문신들을 다수 참여시킨 점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학습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권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 때, 「주문수권」이 포함된 『사부수권』은 1798년 완성된 후 간행 관련 기록이 전무하므로 『주서백선』과 달리 더 넓은 범위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문헌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주문수권」의 구성에 있어 문체별 수록 구절은 『주자대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서간문이 가장 많고, 잡저가 116구절로 그 다음에 해당한다. 세부 구성상의 특징은 절록된 구절만을 대자로 수록하여 이외의 정보는 비교적 소략하거나 아예 생략하였다는 점이다. 또, 『주자대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배치 순서를 변경하였던 『주서백선』과 차이를 보인다. 작품명은 구절이 끝난 뒤 아래에 세주쌍행으로 표기하되,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때, 관련 인물의 이름이나 장소의 지역명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략 혹은 추가하고 있어, 작은 제목 표기마저도 효율적으로 요약하고자 했던 정조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주문수권」과 『주서백선』 두 문헌에 선별 및 절록된 작품을 비교해보면 『주서백선』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주문수권」에는 미수록된 15편이 존재하며, 이들은 대체로 주자의 학술 사상 및 논의 혹은 주자의 사적인 조언 및 의견을 담고 있다. 「주문수권」은 주희가 서술한 사상에 대한 논리를 왜곡 없이 전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구나 독자층을 명확하게 설정한 문헌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초록하는 편찬 행위 자체에 의의를 둔 문헌이기 때문이다.

넷째, 조선조 간행된 주자 관련 선본 13종의 누적 수록 횟수가 높은 작품들의 「주문수권」 절록 여부를 비교해보면, 군주의 덕목이나 올바른 독서법, 충절한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임금의 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글들은 절록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거경궁리’의 이치나 마음의 主宰에 대해 설명한 구절, 그리고 ‘지경’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 구절들은 대부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사부수권』의 다른 주제 부분을 비롯하여 정조의 여러 선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 자주 쓰이는 구절이나 속담과 비유가 묘사된 인용구에 대한 선호 양상을 「주문수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문수권」이 속한 『사부수권』은 많은 양의 문헌을 효율적으로 익히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아 편찬되었고, 이는 『주서백선』을 비롯한 정조의 선본 시리즈도 마찬가지이다. 정조 역시 서문이나 기타 기록을 통해 초본 『사부수권』을 편찬한 뜻에 대해 가장 뛰어난 구절을 절록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이상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문수권」은 문헌의 종류와 구성, 절록된 구절, 간행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언급한 표면적 편찬 목적과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문수권」은 『주서백선』과 그 편찬 의도가 상이했기 때문이며, 단순히 대상 문헌이 주자 관련 문헌으로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두 문헌을 같은 맥락으로 여겨 분석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조의 주자학이나 조선의 주자학 수용 양상을 검토할 때에 「주문수권」을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중요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조의 초본 『사부수권』이 이전에 편찬된 선본 시리즈와 다른 편찬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문헌 구성을 다른 주자 관련 선본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편찬 의도를 추측한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이 정조의 학술 사상과 문헌 편찬 관련 행적을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고는 「주문수권」에 수록된 구절의 내용과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원문 분석과 『오자수권』의 다른 4인의 글을 대상으로 한 부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이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四部手圈』 (영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김문식,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_____,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2000

백승호, 『정조의 문치』, 휴머니스트, 2020

강문식,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학한국학 연구원, 2020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8, 한국서지학회, 2019

윤현정, 「朝鮮朝 正祖 御撰 選本の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_____, 「正祖 親撰『八家手圈』의 編纂에 관한 小考」,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 대동문화 연구원, 2021

_____, 「正祖 親撰『兩京手圈』의 編纂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91, 한국서지학회, 2022

조동영,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한국한문학회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최경훈, 「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朝鮮時代 『朱子大全』의 刊行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76, 한국서지학회, 2018

_____,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DB : 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晦菴先生朱文公文集 (<https://ctext.org/wiki.pl?if=gb&res=175551>)

A Brief Study on Composition of the Jumun-Sugwon

Yoon, Hyun-joung

Jumun-sugwon is an abridgment book extracted from the Jujadaejeon: a collection of works by Zhu Xi, the well-known Confucian scholar during Song Dynasty. King Jeongjo abstracted it and inserted into the Subusugwon, a book composed of four parts, such as Gyeong, Sa, Ja, Jip which is also written by King Jeongjo. In this study, Jumun-sugwon is compared with Juseo-baekseon: an anthology by King Jeongjo which means ‘One hundred letters written by Zhu Xi’, because it is not clear why King Jeongjo made them from the almost same origin in a similar way but in two different sets. A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discovered that the Jumun-sugwon was compiled as a result of a performance of circle on a good text as a way of respect to Zhu Xi for King Jeongjo himself and Chogye-munshin, based on three reasons as follow.

First, the construction of this book shows the King Jeongjo focus on just a performance of circle, so he deleted all of critic commentaries or the informations about original text, such as information of writer, title, writing style. Second, it turns out that there is a noticeable contrast between writings pieces of the Jumun-sugwon and the Juseo-baekseon with 15 pieces of missing writings in Jumun-sugwon in particular. It is because anthology and abridgment book have different functions especially if they were edited by King Jeongjo since he considered abstract and recitation as important ways of study. Anthology was made as a group of abstracts from the original book for educational purpose, but abridgment book was only the result of the performance of circle, which is treated as the right way of study by King Jeongjo. Last, there are also significant view point of King Joengjo about Zhu Xi when Jumun-sugwon is compared with other similar writing pieces during Choseon Dynasty. He did not contain the contents to the collection which could be lesson to King and might be he already know. It clearly shows the purpose of the Jumun-sugwon is not for education. On the other hand, he chose the instructive ones with quotations of frequent use.

It is a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rgument which said the Jumun-sugwon and the

Juseo-baekseon have the same function and purpose just because they both were extracted from the Jujadaejeon. This research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because it points out the clear importance of the Jumun-sugwon by comparing with other similar writing pieces as anthology and abridgment book.

Key Words : Jumun-Sugwon, Juseo-Baekseon, king Jeongjo, Sabusugwon, abridgment, king-edited book, Zhu Xi

